

제92주년 3.1절 순국선열 기려

고성군 운봉리 송모공원서 기념식 개최 ... 고성군기독교연합회 3.1절 기념예배

제92주년 3.1절을 맞아 고성 지역에서도 각종 기념 행사가 열려 순국선열들을 기리고 3.1정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고성군은 1일 오전 10시 토성면 운봉리 애국지사 송모공원에서 기관 단체장 및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2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운봉리 애국지사 송모비는 대한독립애국단 강원도단 고성군 출신 3인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7년 마을 자체자금과 성금으로 건립됐다. 그후 고성군이 1억3천만원을 들여 2명을 추가해 총 5명을 기리는 송모비로 조성했다. 박승근 기자

○...고성군기독교연합회(회장



제92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사진 왼쪽은 운봉리 송모공원에서 열린 기념식, 오른쪽은 기독교연합회 주관 연합예배 모습.



최진목 목사)는 지난달 27일 간성소재 고성감리교회에서 3.1절 92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다. 춘설이 분분한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는 고성군 관내 400여명의 목회자 및 성도

들이 참석해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윤여훈 영동극동방송지사장, 이용완 고성경찰서장, 함명준 고성군의회부위원장, 함형완 고성군의회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

다. 이날 기념예배에서는 정정섭 장로의 말씀에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말씀, 애국가 제창, 기미독립선언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1919년 3월 1일

제국주의자 일본의 억압아래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거행한 민족대표 33인의 선언과 전국과 해외로 퍼져나간 애국지사들의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장공순 시민기자

고성지역 임오생 칠순잔치 열려

가족 부담 안주려고 5년전부터 회비 모아

“오늘 만큼은 동기들과 가족 모두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즐겼어요.”

고성군 임오생(말띠) 모임 회원 11명은 지난달 26일 썬밸리리조트 1층 대연회장에서 가족 및 친인척 16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 칠순잔치를 개최해 훈훈한 감동을 연출했다.

이날 행사는 임오생 회원들이

지난 2007년부터 회비 및 연회를 모아 이번에 성대한 잔치를 마련한 것으로, 가족단체사진 촬영, 케이크절단, 장기자랑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임오생 모임 관계자는 “경제도 안좋고 가족들에게 부담도 있어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는 마음에서 사모임을 구성해 지금까지 오게 됐다”며 “지금은 비록 죽왕과

거진분들이 주축이지만 앞으로 고성군 관내 모든 분들이 함께 모임 했으면 한다”고 했다.

임오생 회원은 △박장진 △최남혁 △유추언 △임학근 △임운택 △최방웅 △최태관 △김윤희 △전영건 △이태호 △송주월 등 11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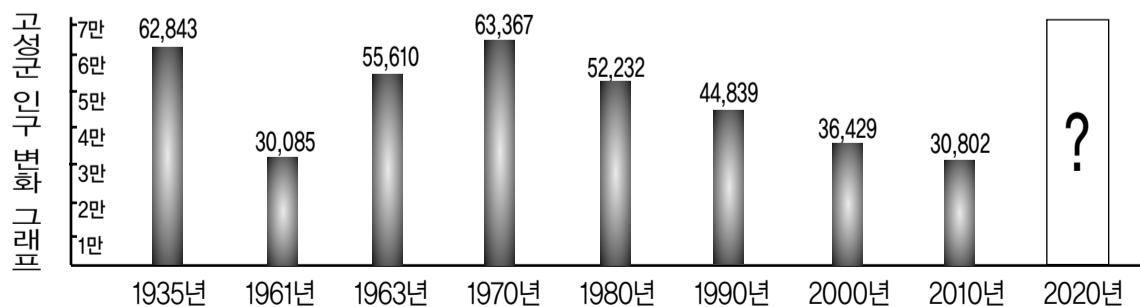
박승근 기자



지난달 26일 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임오생 칠순잔치 모습.

고성인구 늘리기 고성신문이 앞장서겠습니다

고성군 신규 전입 세대에 고성신문 1부를 1년간(4만원) 무료로 배부합니다



전입세대 무료 구독신청
☎033)681-1667

주식회사 고성신문